美 소장 12세기 네팔 불상, 고향 돌아간다

출처 연구 통한 도난 문화재 반환
"두 나라 문화 교류 협력 기대"
추가 반환 요구 목소리 높아져

김민재 객원기자

시카고미술관의 유물 출처 연구 중 해당 불상이 도난 유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환을 결정했다. 3월 19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시카고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12세기 불상 반환 소식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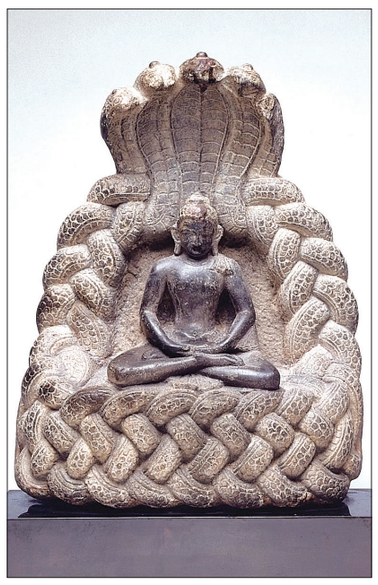
지난 3월 3일, 시카고미술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네팔 정부와 협력하여 '나가왕 무찰린다의 보호를 받는 붓다(Buddha Sheltered by the Serpent King Muchalinda)'를 네팔로 반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불상은 나가왕 무찰린다가 깊은 명상에 잠긴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감싸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시카고미술관은 1997년부터 이 불상을 전시해 왔으며 여러 주요 전시에서도 선보였다. 불상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팔 카트만두 계곡의 '구이타 바히(Guita Bahi)'에서 도난된 유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카고미술관은 네팔 정부 및 워싱턴 DC 주재 네팔 대사관과 협력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했다.

네팔 대사관의 샤라드 라즈 아란 대사는 "이 신성한 조각상은 수세기 동안 네팔의 문화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두 나라의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 보존, 연구, 교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은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들의 출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이다. 시카고미술관의 유물 출처 연구팀 자크 슈마허 책임 연구원는 "이번 반환은 유물 출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카고미술관이 해당 국가 및 공동체와 협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카고미술관은 2024년 초에도 12세기 태국 유물인 '크리슈나가 고바르다나 산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새겨진 필라스터 조각을 태국으로 반환한 바 있다. 이번 네팔 불상의 반환 역시 미술관이 진행 중인 지속적인 연구와 문화재 반환 노력의 일환이다.


시카고박물관이 반환한 '나가왕 무찰린다의 보호를 받는 붓다'. 사진출처=시카고 박물관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문화유산 보호 단체들은 시카고미술관이 여전히 소장하고 있는 다른 네팔 유물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예술 매체 '하이퍼알러제틱(Hyperallergic)'은 "시카고미술관의 소장품 중 카트만두 탈레주 사원에서 도난당한 금동 목걸이가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유물은 2021년 도난품으로 처음 확인되었으며, 이후 여러 활동가들이 반환을 촉구해 왔다.

이에 시카고미술관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유물의 출처를 조사하는 작업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소장품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출처를 밝혀내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밝혀졌을 때 이번 반환처럼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장한 유물의 출처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도난 유물 반환이 중요한 책임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네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카고미술관의 유물 반환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中칭하이성서 14세기 마애불 발견

14세기 티베트 고원 불교미술 중요한 자료

중국 칭하이(青海)성 율쑬(玉樹)의 티베트족 자치주 역사문화연구원은 최근 자치주 남서부에서 14세기 원나라 때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불교 마애석각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3월 21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해당소식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했다.

잠양니마 율쑬 역사문화연구원장은 "마애석각이 발견된 절벽은 현지에서 오래전부터 미륵불의 절벽이라는 뜻의 '잠빨라 마나'라고 불려왔다. 미륵불을 주존으로 하는 마애불이 존재하는 것은 보고되어 왔으나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발견된 마애불은 4080m의 절벽에 조각되어 있으며, 절벽 높이는 2.6m, 폭 1.46m. 새겨진 마애불은 세로 1.1m, 가로 0.74m로 지면에서 약 0.7m의 위치에 있으며, 깊은 부조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발견된 마애불은 미륵불을 주존으로 하는 불교 조상군이다. 보관을 쓴 미륵불이 설법인을 한 모습으로 중앙 법좌에 앉아 있으며 그 양쪽에 높이 30cm의 작은 불상들 4구가 조각되어 있다. 왼쪽 상단에 석가모니,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에 아미타불, 오른쪽 하단에 무량수불이 각각 새겨졌다. 또한 마애불의 왼쪽에는 높이 16cm의 미륵 마애불 2구가 더 확인됐다.


절벽에서 발견된 미륵 마애불. 사진출처=신화통신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14세기 원대 티베트고원 불교미술 연구에 중요한 실증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율쑬 티베트족 자치주에서는 이번을 포함해 마애석각 유적이 9곳 확인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불교단체 "달라이라마에 최고시민 훈장을"

'바라트 라트나' 수여 촉구
"달라이라마 인도 환생 바라"



총회에 참석한 인도 불교 대표들. 사진출처=올거나이저 뉴스

인도 내 히말라야 산맥에 접한 여러 주의 불교단체가 모인 협회 '나란다 불교전통 인도 히말라야 위원회(IHCNBT, 이하 히말라야 위원회)'는 3월 21~22일 제1차 총회를 갖고 인도 최고 시민훈장 '바라트 라트나(Bharat Ratna)'를 달라이라마에게 수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22일 인도 현지 언론들은 히말라야 위원회의 총회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히말라야 위원회에는 인도 전역에서 120명의 불교계 대표들이 모여 진행됐다.

로첸 툴쿠 린포체는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히말라야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지역언어와 문화, 종교를 보존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히말라야 지역 간의 연대를 조직하고 기존의 교육기관인 사원의 학당과 강원들을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학습센터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는 달라이라마 조언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습센터를 개방할 것이며, 이는 국립교육연구소로부터 공인받은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히말라야 위원회는 이번 총회의 주요 결의안으로 달라이라마에게 인도 최고시민훈장인 바라트 라트나 훈장을 인도정부가 수여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달라이라마는 인도와 티베트 간의 역사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전례 없는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평화와 비폭력을 선양한 것은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달라이라마의 공로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인간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종교 간 조화를 촉진하며 인도에서 유래된 고대 날란다 대학의 불교전통을 되살려 인도 불교의 중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업적도 기념했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인도를 '성인들의 땅(Aryavarta)'이라고 부르며, 인도가 티베트의 영적, 문화적 전통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히말라야 위원회는 최근 화제인 달라이라마의 후계자에 관한 결의안 두 가지도 통과 시켰다. 첫째로, 위원회는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인정하는 것이 고대 날란다 불교전통에 근거한 신성한 종교적 과정이며 어떤 정부나 정치기관도 이 과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오직 달라이라마의 공식사무국만이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인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달라이라마를 선택하는 데 있어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간섭에 강력히 반대하며 외부 조직이나 정치세력이 후계자를 강요하려는 시도는 인도내 히말라야 불교 공동체에서 강력히 거부할 것을 분명히 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뉴욕 차이나타운 불교 사찰 5곳 연쇄 훼불

한밤중 공격, 관음상 손목 절단
용의자, '공양물' 훔쳐먹기도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사찰 여러 곳을 연달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3월 20일 뉴욕 언론 'ABC7', '뉴욕 포스트' 등은 뉴욕 연쇄 훼불 사건을 보도했다.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이미 다섯 곳의 사찰이 피해를 본 뒤였다.

첫 공격 대상이 된 곳은 19일 새벽 1시경 맨해튼 파이크 스트리트에 위치한 '숭덕사'였다. 용의자는 소화기를 집어 들고 관음상을 내리쳤다. 이어 소형 불상을 바닥에 던져 완전히 박살 냈다. 몇 시간 뒤 같은 사찰을 다시 찾은 용의자는 사람들이 정성껏 올려둔 공양물을 꺼내 먹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또 다른 피해 사찰인 헨리 스트리트의 '세계불교센터'에서는 용의자가 감시 카메라를 부수려고 시도했다. 브로드웨이의 '그레이스 그래티튜드 사원'도 피해를 입었다. 사찰 보호를 위해 방탄유리를 설치했지만 이번 공격에서 유리창 하나가 박살 났다.


훼손된 숭덕사 관음상. 사진출처=ABC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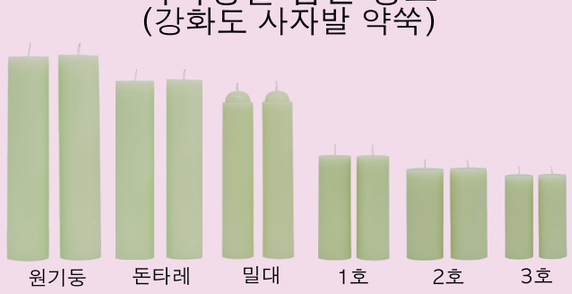
연쇄 훼불 사건 소식이 퍼지자 불교계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레이스 그래티튜드 사찰 주지 정이 스님은 "아름다운 사찰이 무참히 훼손되어 가슴 아프다"고 탄식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49세의 남성을 체포했다. 그는 도교 사찰 세 곳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증오범죄이다. 사찰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향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계기로 뉴욕 불교계는 사찰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침향향을 담은 양초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PC 팜 원통초


연꽃향을 담은 양초


밀랍향을 담은 양초


밀납향을 담은 초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